



글 이명희

그림 도은민

장편소설

초대받은 여자

<7> 큰 그림

수도 있었다.

좀처럼 얼굴이 붉어지거나 흥분하지 않는 상훈이 평정심을 잃고는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다.

“내 방으로 갑시다!”

회의실 문을 등진 채 복도의 커다란 창 앞에서 있던 우룡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우룡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부드러웠다.

우룡이 아침부터 상훈을 국회로 불러 상임위원회 조찬 회의장에 들여보낸 건 다분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서울시장 경선에 나설 차비를 처리하는 공식적 목적은 겉치레일 뿐 진짜 목적은 진육과 맞붙어 놓는 것이었다.

상훈은 아직 체급이 없었다. 사회에서 아

“이 대표한테는 서울시장이라는 관문자가 가장 어려울 거요. 그다음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큰관으로 가게 될 겁니다.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시장이 되는 순간부터 그 흐름에 맡기고 흘러가면 될 거요. 내가 있으니까 뒤는 걱정하지 말고!”

권력 운운하면서 자신이 권력에 눈이 멀어 시장 자리를 탐내는 사람으로 몰았던 진육과 대화로 몹시 마음이 상해있던 상훈은 우룡의 말에 의해 조금 의기를 되찾은 기분이 들었다.

“이미 대선 판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끌어주시면 제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육과 상훈, 둘 다를 끌고 갈 수 있다면



무리 지명도가 있다 해도 정치판에서의 체급은 스스로 싸워서 쟁취해야만 획득할 수 있었다.

가장 빠르게 체급이 정해지는 경우는 이미 국민의 신임도가 높은 정치인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다. 이미 체급이 축적된 사람 옆에서 텅글다 보면 은연중에 비슷한 체급으로 인정받게 되는 묘수가 있었다.

국민의 신임도는 아직 진육을 따라올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상훈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신선한 청년 정치의 기세를 몰아주리라 생각했던 우룡은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흐뭇하기만 했다.

이럴 때마다 우룡은 팬권을 떠올렸다. 상훈이라는 팬권이 하늘로 날아오르도록 옆에서 불을 지피기에 진육보다 더 좋은 경쟁상대는 없었다.

상훈에게 진육이 영원한 적이 된다면 우룡은 한 안들이고 진육을 완전히 제거할

그보다 더 큰 행운이 없겠지만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지금은 상훈이었다. 이미 우룡과 진육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이 망가진 상태로 우룡에게 위협적인 인물이 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훈이 제대로만 끌려온다면 우룡도 손해 보는 게임은 아니었다.

“한우룡 대표님의 손발로 제 정치 인생 바치겠습니다!”

진육과 대화가 머릿속에 남아 자꾸만 불편했던 상훈은 우룡을 향해 흔쾌한 답을 던졌다. 진육을 밟고 나아가는 데는 우룡 이상의 지렛대는 없을 것이었다.

“장변, 이수빈 어떻게 된 거야? 내 앞에 데려다 놓을 거라면서? 찾아와 당장 찾아오라고 내 앞에 데려오라고!”

상훈은 엑셀을 힘주어 밟으며 전화를 받지 않는 장 변호사에게 음성 녹음을 남겼다.

“콘텐츠 창업 꿈 펼쳐라” 상금 1억원 팡팡

콘진원 25~26일 스타트업콘, 성공사례·인사이트 공유 펠렝 佛 전 문화장관·日 츠타야서점 창업자 기조강연

국내의 스타트업과 창작자가 모여 콘텐츠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조망하고 성공사례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2022 스타트업콘’이 25~26일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우수 콘텐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지원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스타트업콘을 개최한다. 2015년부터 시작 올해 8회째를 맞은 이번 스타트업 콘은 ‘콘텐츠, 경계를 허물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콘텐츠·테크·플랫폼·금융... 전문 가퍼퍼런스

프랑스 전 문화부 장관이자 코렐리아 캐피탈 대표인 플리르 펠로랭, 일본 킷치커니언스클럽(CCC) CEO 마스다 무네아키, 데이비드 맥앨라한 디지털 노마드 상무가 기조강연에 나선다. 스타트업의 멤버 김원훈·조진세, 딥고뮤직을 운영하는 메이커스 우상범 대표도 특별세션에 나선다. 25일에는 △콘텐츠 △테크 △플랫폼 △금융 4가지 주제로 국내외 주요 콘텐츠 산업계·학계 관계자들의 트랜

드 강연이 진행되며, 26일에는 △투자 전략 △글로벌 진출 △마케팅 △채용 등 스타트업 경영실무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워크숍을 실시한다.

데이비드 맥앨라한 디지털 노마드 상무는 25일 기조강연을 통해 ‘콘텐츠의 시대, 미래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무한 확장되는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한다.

플리르 펠로랭 전 장관이 ‘스타트업, 비글로벌 투자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지적본권’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일본 킷치커니언스클럽(CCC) CEO 마스다 무네아키는 츠타야 서점의 창업과정과 생존전략을 중심으로 ‘위기에도 살아남는 스타트업’에 대해 강연한다.

특별세션에서는 25일 스타트업의 멤버 김원훈, 조진세가 ‘분개 탐구, 스타트업의 사생활’에 대해, 26일 딥고뮤직을 운영하는 메이커스 우상범 대표가 ‘킬링 보이스, 글로벌 감성을 울리다’를 주제로 콘텐츠 창작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한다.



2022 스타트업콘 포스터. 한국콘텐츠진흥원

경쟁피칭 ‘배틀필드’부터 우수 사업 모델 전시까지

이번 스타트업콘에서는 올해의 콘텐츠 스타트업 유망주를 가리는 상금 1억원 규모의 서바이벌 쇼케이스 ‘배틀필드’가 진행된다. 26일 열리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8개의 본선 진출 팀이 사업

모델을 발표하고 경쟁에 나선다.

카카오벤처스·스파크랩·500글로벌 등 벤처투자사와 스타트업 관계자 심사를 걸쳐 최종 3개 기업이 선발된다. 특히 올해는 CCC사의 CEO 마스다 무네아키와 CCO 다카하시 야수노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 CCC-디지털할리우드 대학 특별상 수상팀을 직접 선발한다.

스타트업 전문 유튜브 채널 ‘EO’의 김태용 대표가 진행하는 네트워킹 파티도 진행된다. 아이디어 융합 팩토리(에비창업), 초기 창업육성, 창업도약, 글로벌진출 등 콘진원 지원사업 단계별 27개의 우수 콘텐츠 스타트업이 보유한 비즈니스 모델이 소개될 예정이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스타트업콘에 참가할 수 있다. 강연 중 일부는 콘진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조현래 콘진원장은 “이번 스타트업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도약을 기대하는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K-콘텐츠와 함께 스타트업 비즈니스의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스카이데일리/뉴스스

단풍 물든 궁궐로 나들이 오세요

4대궁·종묘·조선왕릉 다양한 문화행사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궁궐과 조선왕릉 단풍 시기에 맞춰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안에서 단풍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인다. 사진은 창덕궁 관람정 전경. 문화재청

올해 4대궁, 종묘, 조선왕릉 내 가을 단풍은 이달 말에서 11월 초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덕궁 후원, 창경궁 춘당지 주변, 덕수궁 대한문-중화문 간 관람로, 남양주 광릉, 서울 태릉과 강릉, 고양 서오릉 등이 단풍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궁궐과 조선왕릉 단풍 시기에 맞춰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안에서 단풍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인다.

궁·능에서 즐길 수 있는 가을 문화행사로는 창덕궁에서 11월1일과 2일, 11월5일과

6일 ‘창덕궁 풍류, 고궁음악회’가 열린다. 궁궐관람과 국악전문가 해설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한릉과 인릉에서는 전통공연예술단 풍류와 가곡, 왕의 춤으로 구성된 ‘2022 세계 문화유산 한릉 음악회(만추능연)’가 22일부터 이틀간 관람객을 맞는다.

영릉에서는 여주 관내 청각장애인 위한 역사 해설 ‘수어로 듣는 영릉이야기’가 11월3일 진행된다.

단풍을 즐길만한 장소로 조선왕릉 내 숲길도 있다. 왕릉 내 숲길 10개소가 이달부터 두달간 한시적으로 개방된다.

내일의 부 전 2권

1권 알파편, 2권 오메가편

폭락장에서 증명된 조던 김장섭의 통찰력!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다면 이 책에 답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99.9% 부자 되는 법,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천기누설급’ 부자 매뉴얼!

이 책은 이론만 그럴싸한 책이 아니라, 저자가 직접 지난 수십년 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분석하고, 그 자신이 직접 이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그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JD 부자연구소’에서 회원들이 투자에 활용하고 있고,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완벽한 부자 되기 비법이다. 부동산부터 주식, 채권, 환율까지 국내투자를 넘어 전세계를 대상으로 내 손 안에 넣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오랫동안 최대의 수익을 제갈량처럼 떡주무르듯 할 수 있는 신묘한 계획을 제시한다! 당신은 매뉴얼에 따라 기계처럼 사고팔기만 하면 된다. 부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책이라 할 수 있다.

“뻔할 것이라 함부로 예측하지 마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이 책은 부자 티켓 그 자체다!”

출간 즉시 전서점 베스트셀러

조던 김장섭 지음 | 각권 16,000원

트러스트북스



조던 김장섭의 또다른 필독서! (각권 16,000원)

-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
- <4차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미래>
- <한국의 1000원짜리 땅 부자들>
-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도서는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관련 문의는 02)322-3409

트러스트북스